

“더 늦기 전에”



“아빠, 왜 올해는 작년보다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제 막내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던진 것입니다. 아홉 살짜리가 말입니다.

이 질문의 해답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시간이 날아간다는 말이 실감나는 계절입니다. 아침마다 캐나다의 북극 겨울이 영토를 확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매년 돌아오는 연말을 행해서 한 발자국씩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세상은 선거, 불안한 경제, 그리고 흔들리는 시장에 대한 소식으로 흉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가 오히려 지난 한 해의 여정을 돌아보고 생각하기에 적절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섬겼던 목회지의 많은 교우들은 편의점 같은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침에 일찍 시작하고 제일 나중까지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쓸 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 재산이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 ‘K’ 선생이 어느 늦가을에 경험한 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을 햇볕이 따뜻해 보이지만 찬 바람이 길거리를 쓸고 다니는 한 지루하게 느껴지는 오후에 중년 부인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 부인은 왠지 좀 불안해 보였습니다. 뺨이 불그스레한데다가 얼굴에는 말하기를 주저하는 표시가 역력했습니다. ‘K’ 선생은 그 부인이 구입할 물건을 찾는 것으로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그 부인은 “K” 선생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여전히 할말을 찾지를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지나자 그 부인이 드디어 고개를 들고 “K” 선생을 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직도 좀 불안한 기운이 있었지만 한편 단단히 마음을 먹은듯한 모습이었고 이유는 모르지만 눈가에 눈물이 젖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좀 이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인이 이어서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어 카운터 위에 놓았습니다. “뭘 드릴까요?” 늘 하듯이 전문적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K” 선생에게 돌아온 말은 매일 대하는 손님들에게서 듣지 못하던 말이었습니다. “이 돈을 그냥 받아 주십시오.” 예상하지 못했던 말에 “K” 선생이 물었습니다. “오, 그냥 받으라고요? 이거 좋은 일이지만 왜 받아야 하는지요?” 부인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오래 전 청소년 시절에 이 가게에 들어왔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복잡했는데 그 틈을 타서 제가 담배 한 카톤을 훔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부인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무 늦었을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그때 있었던 가게 주인도 아닌 것을 알지만 이 돈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기억 때문에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서 놓임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또한 가능하다면 선생님과 평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K” 선생은 그 돈을 받으며 부인의 용기와, 평화를 만들고자 기울인 노력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잠시 후 그 가게를 떠나는 부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충만한 행복과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이 “K” 선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건 너무 늦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또 내 자기 자신과 평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지요. “K” 선생은 부인이 놓고 간 돈을 자선기관에 보냈습니다. “그 부인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복잡한 인생 여정을 지나가는 여러분에게 저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얼마를 소유했는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의미 있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사랑과 용서의 기초 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욱 바빠지는 연말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정리하고 회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서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날 뿔뿔 등락을 거듭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고 만족하며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정말 날아 갑니다. 그 시간이 영원히 가 버리기 전에 함께 해봅시다.